

아침마다 '금강경' 읽으세요

지구 이전부터 있었다. 허공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다. 허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절대정정이며, 원만구족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즉 내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기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허공과도 같은 내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내어 쓰면' 된다.

스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내 마음을 깨닫는지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다.

"불생불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기는데 왜 생기지 않는 것이며 멸하는데 왜 멸하지 않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질량불변의 법칙'을 떠올리면 불생불멸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스님은 나의 대답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 하시고 전깃불을 예로 들어 법문을 이어갔다.

"음극과 양극이 합쳐져서 불이 켜지잖아요. 전등불은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데도 우리 눈에는 필름이 돌아가듯이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요. 말하자면 1/60초 동안에 전극이 불어있다가 1/60초 동안에 떨어졌다가 반복하는 가운데 전깃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어있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지요. 전기가 없는 1/60초 그 순간에 무엇이 있는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이에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있는 순간'을 알아야 합니다. 있는 순간에도 있고, 없는 순간에도 있는 것이 부처입니다."

법부들은 있다는 세계와 없다는 세계만을 인식하는데, '있다 없다'를 초월한 그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없는 것이 있는' 그 순간이 공(空)인데, 그것을 보아낼 줄 알아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없다고 하지만 죽으면 살아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다. 죽을 때 살아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도장에 비유한다면 살아있는 것은 양각이요, 죽어 있는 것은 음각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며 살아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불이(不二)의 관계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무한정도로 내어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쭙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창공을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스님은 새를 가리켰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에 '저 하늘을 보아라. 저 새 들이 언제 먹는 것을 걱정하느냐. 하늘의 새가 잡자리를 달라고 하던가. 그런데 여호와가 다 준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것을 불교식으로 바꾸면 '저 하늘을 보아라. 저 새들이 언제 먹는 것을 걱정하느냐. 하늘의 새가 잡자리를 달라고 하던가. 그런데 이미 다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가 되겠지요. 이 말은 태어날 때 내가 불성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갖추어진 불성을 그대로 내어 쓰면 돈이 생기게 되어 있고 밥이 생기게 되어 있고 건강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새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본성에 따라 먹이를 찾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는데 이때 수많은 새들이 본성적으로 알고 몰려옵니다. 우리도 본성을 보면 본성자리에 서게 됩니다. 본성자리에 서면 본능적으로 돈이 있는 곳을 알고 명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광덕 스님의 이 법문은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잘 살고 싶어도 부처님께 기도해야 하고,

저쪽 세계를 보고 싶어도 부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어 쓴다'는 깊은 뜻을 알고 싶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다. 스님은 한때 장안의 지가(紙價)를 올렸다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으셨다. 고개를 끄덕였더니, "이 책은 불교의 '일체유심조'를 차용하여 일반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어요. 그런데 광덕 스님께서 설한 마하반야바라밀 법문도 이와 똑같은 것이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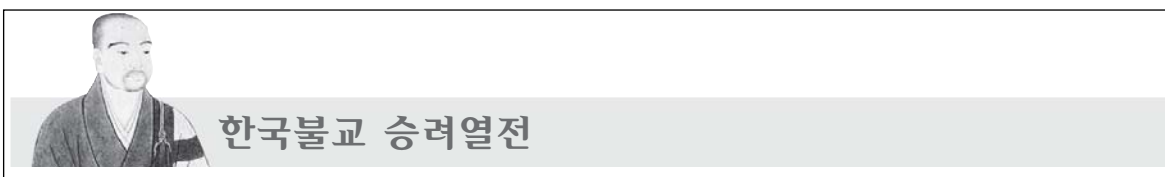
시대가 물신(物神)주의이다 보니 종교가 물신교가 되고 기도가 점점 더 기복화 되어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기도를 통하여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려는 기도는 불교적인 기도가 아니란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 쓸 줄' 아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란다.

기도에 대한 개념이 깨어지는 순간이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침에 <금강경>을 한 편 읽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공덕을 내어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관세음보살기도를 할 때 우리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고 나에게 열쇠를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관세음보살' 화(化)해야 하고 내 안에 관세음보살이 지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그것을 '내어 쓴다'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100% 믿는다면, 새가 먹이를 찾아가듯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저절로 가게 되어있어요."

임제 스님이 '수승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승함이 온다'고 했듯이 불성자리를 익히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저절로 오게 되어있다. 기도란 '내 생명 속에 넘쳐흐르는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 온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젠 선계(仙界)에서 속계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옷자락에 묻혀올 것 같은 안개도 그 자리에 두고, 마주했던 소나무도 그 자리에 두고, 휘장처럼 겹겹이 둘러쳐진 산도 그 자리에 두고 산문을 나섰다. 글·사진·문예(수필가·본지 객원기자)



한국불교 승려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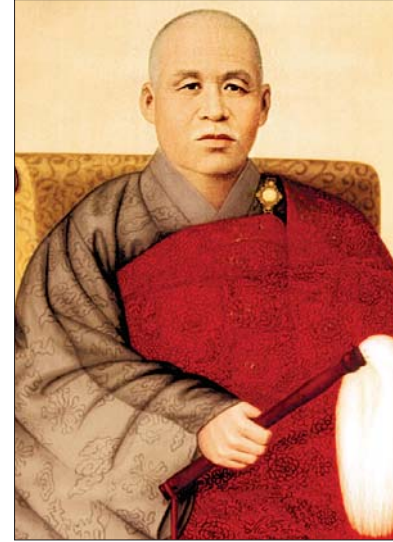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①

불제자 그것도 승려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걸어가는 데는 적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일이고 견줄 길이 없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부처를 전하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를 전하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나누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자랑한다. 지난번에 운허옹 하 스님을 소개하고 다시 이번 에 용성진종 스님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말 우리 글로 부처를 만나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혹은 생각해보자. 한문으로 경전을 읽고 한문으로 부처를 말한다. 혹은 쉽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도통 모를 것이 또한 남의 나라 말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한 많은 식자(識者)가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렇다.

누구나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선 도로에 바로 면한 것도 아니고, 한 골목을 들어 가서야 나타나는 크지도 않은 사찰이 있다. 대각사(大覺寺)이다. 한국불교의 기나 긴 전통을 담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2011년 4월 8일이면 창건한 지 100년이 되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조그만 사찰이다. 하지만 여기가 현대 한국 불교 100년의 또 다른 출발점이자 역사의 산실이기도 하다.



용성진종 조사 진영.

1910년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했고, 1913년에 출간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이듬해인 1911년 빼앗긴 도성의 한 귀퉁이에 지어진 조그만 사찰, 그것이 대각사였고, 그 대각사를 창건한 이가 바로 다른 아닌 용성 스님이다. 수행에 전념하던 스님이 경술국치를 당한 다음 해에 세상을 향해 열어 제친 그 문이 바로 '대각사'였고, 거기에서 하화중생의 오르막길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후 임직하기까지 40년 동안 용성 스님은

대각사 창건... 현대 한국 불교의 출발점

1443년이고 그것을 세상에 반포한 것이 1446년, 다시 수양대군이 지은 <석보상절>을 따라서 세종대왕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노래로 지은 것이 <월인천강지곡>이니 1447년의 일이다. 이후 적지 않은 불경 언해본들이 조선시대에 등장하였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때문에 그것이 곧장 불교를 전하는 데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훈민정음, 달리 말해서 우리 문자인 한글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제대로 활용되기까지는 다시 그로부터 5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혹은 한글이 승려들에게 다시 발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 땅의 중생들에게 좀 더 쉽게 부처를 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서 한글에 부닥쳤던 최초의 인물들이 땅에 등장한 것이 1920년에 이르러서였기 때문이다.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 독립선언서에서 서명한 33인 중의 한 분이자, 그 33인 중 승려로서 참가한 단 두 분 중의 한 분이다. 스님의 속성은 수원 백씨이고, 이름은 상규, 법명은 진종이고, 법호가 용성이다. 1864년 고종 원년에 태어났으며, 1940년에 임직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로는 아니다. 종로3가역에서 창덕궁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2차

만해 스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의 중생들에게 불교의 문을 열어 보았다.

만해 한용운이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과는 달리 스님은 일반대중들에게는 그리 익숙한 인물은 아니다. 만해가 갔던 길과 스님이 갔던 길이 같으면 서로 서로 달랐던 까닭이다. 승려로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이다. 스님은 만해보다 15년 연상이었는데, 때로는 만해의 동반자였고 때로는 만해의 비판자였다. 하지만 세상을 향하고 중생을 향해 열린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두 스님 모두 주저함이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각사를 창건한 때부터 기미년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의 10년은 부딪침의 세월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우리 불교전통마저도 빼앗길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중생을 구하고자 중생에게로 왔지만, 중생을 돌볼 틈이 없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었을 때 거침없이 서명해 동의를 한 것 또한 그 돌볼 틈이 없었던 중생, 빼앗긴 한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하기로는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중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지를 궤히 발표하라'는 내용은 스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연방정부 우 난 위인 외무부장관 내방 목탁스님께 빈민가 우물 파주기 성과에 감사의 뜻 전함



미얀마 연방정부 우 난 위인 외무 장관이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얀마 문화원(원장 목탁)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원을 이끌고 미얀마를 위해 실질적인 봉사운동을 진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우 난 위인 장관은 목탁 스님께 "앞으로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는 한국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 하며 어떠한 지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양국 관계가 더 큰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글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앞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빈민가 우물파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얀마 양곤 빈민가 지역 중 식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극빈 마을에 5기의 우물을 파주는 행사를 진행하여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협회는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30여기의 우물 파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연방정부가 공식인정한 미얀마 문화원은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스님, 재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